



# 광림 뉴스레터

## KWANGLIM NEWSLETTER



### <2019 전교인 여름수련회> “심령이 상쾌하게 되리라”

8월 13일(화)~15일(목) 본당과 광림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동시에, 강사는 대전 천성교회 조성근 목사

**“전교인 여름수련회를 통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혼란한 이 시대에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세상을 화평케 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함께 은혜 받는 기회가 되길 원한다.”**

피곤한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는 회복의 자리 무더위에 지친 광림의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2019 전교인 여름수련회>가 8월 13일(화)~15일(목)까지 광림교회 본당 대예배실과 광림남교회, 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에서 동시에 열린다. 이번 전교인 여름수련회 주제는 “심령이 상쾌하게 되리라”(렘 31: 25)이다. 광림의 성도들은 지난 호렙산 기도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역사로 다시 하나 되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 기도의 회복으로 영적 능력이 새롭게 되고, 나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회복되길 기도했다. 또 교회와 개인, 가정의 회복을 기도하며 온전히 열매 맺는 믿음의 진보를 경험했다.



조성근 목사

이번 전교인 여름수련회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참된 회복의 역사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체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8월 13일 저녁 7시 30분 예배를 시작으로 7번의 집회가 뜨겁게 이어진다. 이번 전교인 여름수련회 강사는 대전 천성

교회 조성근 원로 목사이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문제 해결하실 수 있어 김정석 담임목사는 “이번 전교인 여름수련회를 통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어느 때보다도 암울하고 답답한 이 시기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괴로움과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전교인 여름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우리의 심령에 시원함과 상쾌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 혼란한 이 시대에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세상을 화평케 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함께 은혜 받는 기회가 되길 원한다”라고 말했다.

전교인 여름수련회 기간 동안에 버스 6대(1호 : 산본 평촌 방면, 2호 : 마천 석촌 방면,

3호 : 김포 방면, 4호 : 구리 광장 방면, 5호 : 덕소 방면, 6호 : 하남 고덕 방면)가 운행되어 성도들의 여름수련회 참석을 돕는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렘 31: 25)

#### [ 2019 전교인 여름수련회 일정 ]

- 13일(화) 저녁 7시 30분 : 성령을 받으라 (행 2:37-42)
- 14일(수) 새벽 5시 : 응답받는 기도 (삼상 1:9-18) 오전 10시 30분 :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행 6:1-7) 저녁 7시 30분 : 복이 되어라 (창 12:1-9)
- 15일(목) 새벽 5시 : 열매를 많이 맺어라 (요 15:18) 오전 10시 30분 : 이삭을 반제로 드러라 (창 22:1-12) 저녁 7시 30분 :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명 (창 39:1-6)

이상희 기자 shlh616@naver.com



#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라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5-10)

믿음을 몸소 보여주시고 그것을 증거 하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4절에서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도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보여주셨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훌륭한 믿음을 갖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5절)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



뽕나무

“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

신들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 되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했던 제자들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뭇 가지들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믿음에 그치지 않고 더 큰 믿음을 가져서 삶속에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마귀와 시험을 이길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능력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간청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5절) 믿음에 믿음을 더한 크고 장성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않으시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합니다. 이는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5-10  
5.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6.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7.너희 중 누구에게 받을 같거나 양을 치거나 하거나 9.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 지니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6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믿음은 예수님처럼 자연을 잠잠케 하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크고 위대한 믿음을 갖는 것보다 믿음이 진실한지 보셨습니다. 스코틀랜드 어느 작은 교회에 한 주간 동안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회에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았습니. 그런데 부흥회 마지막 날, 한 작은 소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부흥회 기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소년 하나라고 생각하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눈에는 뜨거운 불꽃이 있었습니다. 소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프리카를 제게 주십시오.” 이 소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프리카를 구원한 복음의 사역자 리빙스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

는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합니다.

### 둘째,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로 ‘종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주인이 종더러 밭에 가서 일할 것을 명령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그더러 와서 먹으라고 말할 자가 있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이는 종이 매우 지쳐있어도 주인을 위해 수종들고 그 후이나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힘든 상황에서도 주인을 위해 일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믿음을 더해 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왜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종에게는 ‘내 것’이 없습니다. 종의 것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오라하면 와야 하고, 가라 하면 가야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에 따르며 내 제물, 시간, 지혜, 명예 등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살 이전의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살며 자신을 전부로 여겼지만 그의 삶은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80이 되어 하나님이 부르실 땐 자신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부정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주십니다.

### 셋째,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겨자씨 비유’와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10절에서 결론을 이야기 하시며 이렇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10절)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는 것은 대가와 보상 없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에는 믿음의 역사가 없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보상에 연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부정해야 합니다. 그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뽕나무를 산에서 바다로 옮기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목회연구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102-2056-5730



# <광림북교회> 창립 1주년 감사예배 드려

8월 4일 주일, 김정석 담임목사 격려의 말씀 전하고 유아세례 집례해



**1주년 맞아 전하는 감사의 편지**  
 광림북교회가 2018년 8월 9일 봉헌예배를 드린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늘 처음이기에 걸어가면 길이 되는 광림북교회. 쉬운 듯 보여도 한 번 지나가는 것이 길이 되고 전통이 될 수 있기에 항상 다듬듯 살피가게 됩니다. 그래, 담임목사님을 모시자! 당연히 오셔야 하지만 주일 5번의 설교를 하신 후 또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주저하다가 그래도 딱 1번이기에 죄송한 마음을 무릅쓰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북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마음과

물질로 후원해주신 분들과 기관과 부서를 초대해 같이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설레임과 기쁨으로 초대장, 순서지를 밤새워 제작하고 사진전, 동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애찬관에서는 불과 씨름하며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공기처럼 계속 달려만 왔던 더위를 잠시 식히고 새로운 발걸음으로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250명 성도들은 김정석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폭포수 같은 시원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어

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다는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1주년을 기념하며 3명의 유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낳은지 1년 된 아이, 50일 된 아이, 50일도 안 된 아이였습니다. 꼭 우리 교회가 세례받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대표로 신앙 고백을 편지에 담아 담임목사님께 감사인사를 드리는 순서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이고 기적이었습니다. 특별히 낮에는 감독님께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축복 가득한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1년 동안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마디가 자란 느낌입니다. 다시 한 번 담임목사님,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광림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과 세상에 기쁨을 주는 광림북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섭 목사(광림북교회)

## 광림장학금은 다음세대 위한 영적 사업, 많은 동참 기대

광림장학위원회(위원장 : 이동호 장로)는 광림교회의 5대 목회철학을 근간으로 믿음, 사랑, 나눔의 장학이념 아래 미래 지도자 육성을 목표로 장학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장학사업은 대내적과 대외적으로 분류가 되는데, 먼저 대내적으로는 광림교회 대학생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성적우수장학금, 봉사우수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음 대외적으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현직 담임목사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목회자자녀장학금 제도로 분류가 된다. 현재 광림장학위원회는 각 교구 장학위원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특별헌금, 기념장학기

금과 전교인 일만원 장학금 운동, 기업후원 장학금과 개인명의 기념장학금이 재원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장학생 선발 기준은 학교 성적이 B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성적우수 장학생은 교구목사와 전도사의 추천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봉사우수장학생은 교육국과 청년부의 추천이 있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자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통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성적우수, 봉사우수장학생은 150만 원의 장학금이 주어지며, 목회자 자녀는 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광림장학사업은 다음세대를 위한 영적 사업

이다. 광림장학위원회는 처음 장학위원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매년 1억 5천여 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며, 지난 20년 동안 총 23억 원을 지급하는 장학위원회로 발전했다. 광림장학위원회는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협조를 요청했으며, 장학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은 권면을 부탁했다. 올해 가을학기 <광림장학금> 수여식은 9월 1일 주일 저녁 본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신애 기자 milkpsa123@naver.com

## 세상을 이길 힘을 준 <사랑부 여름수련회>



8월 3일(토)~4일(주일) 'The Gospel : 복음의 능력'(롬 1:16)이라는 주제로 사랑부 여름수련회가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열렸다. 이번 여름수련회에는 사랑부 학생 및 교사, 서울여성, 경찰대학생을 포함한 자원봉사자 270여 명이 참석했다. 사랑부 교사들은 호

렙산 기도회 때부터 여름수련회 중보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고, 팀별로 릴레이 급식기도를 하면서 준비했다. 뿐만 아니라 주제에 맞춘 수련회 공과를 제작해 수련회 3주 전부터 설교와 분반시간을 통해 말씀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었으며, 수련회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말씀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덕민 목사(사랑부 담당)는 "이번 수련회의 말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첫날은 개회예배 후 목사님들께 안수기도를 받고 야외활동을 했다. 학생, 교사, 자원봉사자가 한데 어우러져 물장구를 치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고, 대운동장에서는 사랑부

축구팀과 교사들이 함께 축구를 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모두의 얼굴은 행복 그 자체였다. 저녁 집회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도했으며, 마하나임 A.P 특별공연을 통해 모두가 하나 되는 자리가 되었다. 둘째 날은 주일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진행했으며, 말씀체험 프로그램을 가졌다. 코스별 게임과 미션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기로 모두 함께 결단했다. 우형진 권사(사랑부 위원장)는 "수련회 준비가 많이 내려 걱정했지만, 그 비로 수영장 물도 가득 채워지고, 좋은 날씨 속에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김혜경 기자 kyung5374@hanmail.net

### 포토 뉴스



**어린이영어예배부 브라이언 김 찬양집회**  
 7월 27일(토) 저녁 6시, 어린이영어예배부 여름성경학교에서 찬양사역자 브라이언 김의 찬양집회가 있었다.



**사랑의 쌀 전달식**  
 8월 4일 주일, 2부예배 후 광림사회봉사관 1층에서 사랑의 쌀 전달이 있었다.



**웨슬리 목사 영어예배 인도**  
 매 주일 오후 2시 30분, 캐나다에서 온 웨슬리 케네디 포스트(Wesley Kennedy Post) 목사가 영어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 담임목사 동정



- 7/28 찬양예배
- 8/2 C채널/GoodTV 성령한국 인터뷰
- 8/3 케냐 감동회장 조셉 은툼브라 면담
- 8/4 광림북교회 1주년 감사예배
- 8/5 CBS 인터뷰

### 감독 동정



- 7/28 광림서교회 주일예배
- 8/4 광림북교회 주일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내 인생의 말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편 23:4)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삶에 굴곡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여 평안한 생활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원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여 힘들게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으로 겸손과 인내와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조금만 탄 곳을 바라보면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길을 지나가는 것은 언제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내가 혼자 통과하도록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여 저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막대기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저를 구원하셨고 생명을 주셨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실 때 지팡이만 가지고 나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징계의 막대기도 사용하십니다. 그 막대기는 제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임을 확정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나의 높아진 마음과 부족한 믿음, 잘못된 죄의 습관에서 돌이켜 겸손한 태도와 확고한 믿음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방법에 저는 항상 놀라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사망의 세상 골짜기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김정훈 집사(중등2부 교사)

척박한 여건, 넘치는 은혜 <라오스 의료선교>

7월 25(목)~29(월), 광림의료선교회 해외의료선교 진행



동남아시아의 내륙 국가,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물이 많은 수력발전 국가,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배터리라고 불리고 전기가 많아서 수출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비싼 전기를 쓰는 국가. 농경국가로 척박한 여건 속에서 여러 소수 민족들이 고산지대 혹은 산악 지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동남아의 강국인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굴곡이 많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 선교지에는 라오족들도 있지만, 중국의 소수민족인 묘족과 같은 족속인 몽족도 많이 사는 곳입니다.

이번에 광림 라오스 의료선교팀은 내과, 외과, 소아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치과 진료를 주 진료 과목으로 치료하였습니다.



퇴행성 질환이 많은 특성에 맞게 시력 상담과 돋보기 배포를 하였고, 어린이들에게는 충치예방 불소도포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미용 봉사를 통해 지역 사람들에게 많은 호평을 들었습니다.

첫째, 둘째 날은 학교에서 의료선교가 이루어져서,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 해당 지역 라오스 봉사자들의 체계적인 도움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을 포함한 가족 단위의 방문이 많았기에, 풍선 아트, 스티커 타투 등과 같은 활동을 포함하여 즐거움도 같이 선물하였습니다.

저희 라오스팀에는 소위 '드림팀'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청년 둘, 고등학생 둘, 중학생 한 명으로 이루어진 드림팀은 진료실이나

약국, 레크리에이션 등에서 총횡무진 넘치는 활동을 하였고,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을 주는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현지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포함한 모든 팀이 함께 예배를 드린 후, 출국 전까지 시간을 모아서 교회 성도들에게 의료선교를 하고, 무사히 밤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였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인과 비슷한 라오스 사람들, 특히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편에서 싸웠던 몽족들을 보면 역사적으로 한국인과 공유하는 점이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피부과 의사로서 몽족들의 피부 질환을 보면서 아시아를 여기저기 떠돌다가 하필 이런 습하고 덥고 척박한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밝은 웃음과 긍정적인 태도를 보며, 하나님이 곤란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오스는 풍부한 전기 에너지라는 혜택을 많이 받은 곳이지만, 사회주의 공산국가라는 명에도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라오인과 몽족 그리고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라오스가 성령의 에너지도 넘치는 곳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안효현 권사(광림의료선교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희망을 마주한 <몽골 의료선교>



7월 25일~29일까지 진행된 몽골의료선교는 인원이 부족하여 처음부터 쉽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많은 가정들이 지원해주어 팀을 구성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몽골의료선교팀은 비뇨기과/피부과(신명국 권사), 치과(최호근/김은경 집사), 신경과(김희진 집사), 소아청소년과(이현희 선생), 마취통증의학과(신진우 교수) 총 5개의 전문의들과 류명지 약사님, 의료선교회 회원들의 가족 및 자원봉사자 2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광림교회의 도움으로 수술하였던 '불가마 어린이'의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을 직접 보고 그 가족 8명 모두가 어르비트 교회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확인하여서 감사했으며, 한 후원자의 도움으로 현지에서 그토록 바랐던 100상자에 해당하는 라면



(총 3,000개)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이채욱 선교사님의 경건회 인도 후 어ینگ게렐 교회로 이동하여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60년만에 처음으로 몽골 초원에 폭우가 내렸다 개었다를 반복하는 날씨 속에, 예년보다 많은 210명 이상의 환자를 각 과에서 돌아가면서 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날인 토요일도 밀려드는 환자로 12시가 되기 전에 300명 넘게 접수를 하였고, 진료는 오후 8시까지 이어졌습니다.

내과, 신경과에서는 놀랄 정도로 높은 혈압이나 관리가 안되는 당뇨 환자, 뇌졸중, 두통, 뇌전증 환자를 보면서 건강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도 반드시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통증의학과에서는 각 진료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도 늦게까지 진료가 이루어졌고, 특히 이번에는 통증의학과 명

의인 아산병원 신진우 교수님 가족이 함께 해주셔서 차원 높은 치료가 이루어졌으며, 의료선교를 위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늦은 나이에 취득하고 현장에 바로 투입되신 박금순 권사님께서도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치과에서는 몽골의 모든 연령에 걸쳐 구강위생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 갈 때마다 치아를 빼기에 급급한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소아청소년과는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올해 제대로 진료받지 못한 많은 환자들은 아쉬워하며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류명지 약사님과 이남홍 권사님, 신향희 권사님, 박선미 선생, 조성훈 학생께서 함께해준 약국 어벤져스 팀은 밀려드는 처방전을 모두 처리하느라 가장 늦게까지 일했으며, 약 봉투에 몽골어로 메모해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일예배에서는 몽골에서 10년 선교활동을 한 이채욱 목사님의 감동적인 설교가 있었으며, 몽골의료선교팀 전체가 힘든 가운데서도 틈틈이 익힌 몽골어 찬송을 불러 은혜가 넘쳤습니다. 새신자 소개 시간에는 손을 번쩍번쩍 드는 여러 명의 새신자들을 보며 몽골선교의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가'라는 몽골 청년(동시통역자)이 한국신학대학원에 합격한 것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김희진 집사(광림의료선교회)



# 폭염 날린 청년의 열정, 믿음의 다음세대 세우다

<2019 국내 교육선교> 전국 19개 지역 150여 개 교회에서 뜨겁게 진행 중

### “교육선교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겸손의 시간”**

지난 7월 25일부터 시작된 <2019 청년부 국내교육선교>가 다음 주 평택지역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300여 명의 광림 청년들은 긴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전국 19개 지역 150여 개 교회 1,200여 명의 어린이들을 섬기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청년들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하루 전 각 지역교회를 향해 출발한다. 1박2일 또는 2박3일의 짧은 기간

동안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찬양, 공과 등을 꼼꼼히 준비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더욱 다가서도록 거듭되는 수정을 마다하지 않는다. 온종일 아이들과 보내며 3시간 이상 잘 수 없는 강행군의 일정이지만 오직 기쁨과 감사로 함께한다. 유학 중 방학을 맞아 한국에 들어와서, 군대 휴가를 모아서, 회사 연차를 내는 등 선교에 참여한 청년들의 면면은 각기 다르지만 열정과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만은 하나다.

이승곤 팀장(국내선교팀)은 “호렙산 기도회 기간 선교비 마련을 위해 샌드위치를 판매했던 어느 해와는 달리 하나님의 도우심만

을 기대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셨고, 많은 성도들과 교회 각 기관의 후원과 기도는 저희 청년들을 더욱 열심히 선교에 임하도록 독려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김 철 목사(단양 가산감리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청년들의 모습에 감동했다. 불편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섬김과 헌신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마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큰 은혜였다. 이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선아 기자 andy8950@naver.com

### 신앙 간증

##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주님

1년 반 동안 저는 소망을 잃고 살았습니다.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믿음의 다음세대가 점점 약해져 가는 것처럼 보였고, 앞으로는 더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교육선교 시즌이 다가오고 그렇게 소망 없이 태백지역 팀장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육선교 기도회 때 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너머 주 뜻 이루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닌 저의 눈으로 본 분석 결과에 소망을 두었던 저는 그 앞에 회개하게 되었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135명의 아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여름성경학교인 태백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많은 아이들이 자고 간다는 사실에 부담만 가득해서 무엇보다 시작해야 할 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아이들 명단을 받은 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한 명 한 명의 영혼이라는 것을 깨달아 더 많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중 기도모임을 만들고 기도로 태백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태백지역에 기도의 불이 덮이도록, 둘째, 태백지역에서 만날 아이들이 믿음과 기도의 용사로 자라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도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처음 저희 계획은 저녁집회 후 세족식을 진행하는 것이었지만, 강사님께서 그 시간까지 기도회로 이끄셨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아이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싶다고 어필했기 때문이고, 이에 강사님은 기도회 때 지역 교사와 청년들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아이들을 안고 기도할 때 교사들의 눈물이 아이들에게 떨어졌고 기도의 불이 예배당을 덮었습니다. 아이들과 교사들은 서로를 위해 부르짖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도회가 끝난 후에도 감정이 진정되지 않아 오열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울음소리나 아이들에게 오늘은 슬픈 날이 아닌 기쁜 날이라는 것을 알려준 후 기쁨의 찬양을 울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세대에 소망이 사라져간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음을 이번 선교 때 보았습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유현수 성도(청년부)





### 첫 수확을 주님께 드립니다

- 목회현장 -



정용식 목사(7선교구)

“요즘 어떠세요?”라는 질문에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특별히 요즘에는 가장 먼저 일터(직장, 사업장 등)에 대한 안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도 성도님들께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들려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어렵습니다”입니다. 심방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나라가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을 체감합니다.

그 이유 때문일까요? 올해는 대심방을 가정이 아닌 사업장에서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 한 성도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심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님 부부가 운영하는 의류디자인 판매 사업장입니다. 같은 길을 가던 둘은 유학 중에 만나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모든 과정이 결코 녹록치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사업장을 임대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업의 길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던 순간 성도님께서는 무엇인가 적혀 있는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금액 1,114,630원, 그 밑에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첫 번째 과실을 거룩히 여겨 여호와께 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예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발을 내딛었을 때, 만나는 그쳤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그 땅에서 경작하여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에서 3년 동안은 수확한 것을 먹지 말고 그 다음해에 수확한 모든 과실은 주님께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만나가 아닌 다른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하는 믿음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성도님 부부가 드린 첫 예물은 그 이상의 믿음과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자녀를 키우고 있고, 사업장 운영을 위해 반드시 목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 10원도 남기지 않고 첫 번째 열매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축복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느낀 여름행사

- 광림남교회 -



7월 20일(토)~21일(주일)은 광림남교회에서, 8월 1일(목)~3일(토)은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2019년 광림남교회 여름성경학교 및 여름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여름캠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섭리를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진행된 유아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때는 태풍이 비를 뿌리는 중에도 오후 물놀이 시간만큼은 화창하게 개어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 함께한 8월 여름캠프에서는 직전까지 많은 양의 비가 오면서 비전랜드 수영장과 물저장고를 가득 채워주었으면서도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좋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돕는 손길과 헌신, 광림남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어우러져 아름답게 진행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도우심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본당과 함께 진행했던 여름캠프가 올해는 남교회 단독으로 기획되면서 여러 부서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유아부와 유치부는 2박 3일 일정을 소화하기 어렵기에 함께할 수 없었지만 유년부, 초등부, KEBS(광림남교회 영어예배부), 중등부, 고등부가 국제광림비전랜드라는 훌륭한 공간에서 은혜받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요’라는 주제와 사도행전 3장 6절 주제말씀을 본당과 공유하여 광림의 정

체성을 이어가면서 남교회 교회학교 안에서 하나 됨을 추구한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정식 부서로 함께하는 KEBS의 교사들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Heaven Market’으로 헌신하여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청년부와 청장년부, 남/여선교회 성도들께서는 자원봉사자로 섬겨주시는 것은 물론, 오고 가는 길에 짐을 싣고 내려주시는 것으로 커다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번 여름캠프의 마무리는 협동화 그리기였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인물로 한 여름캠프 이기에 베드로의 행적 중 의미가 큰 네 장면을 각각 그리고 꾸며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년부는 부르심을 받는 어부 베드로, 초등부는 성령을 받은 후 설교를 통해 3천 명을 회심시키는 베드로, 중등부는 성전 미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이를 고치는 베드로, 고등부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지만 이내 빠져버리고 만 베드로의 모습을 모든 아이들이 함께 하여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해주신 성도들,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캠프의 주제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광림남교회 교회학교가 될 것을 믿으며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강영범 전도사(광림남교회)

## ‘답은 지저스’, ‘살고, 살리고, 살아가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 아웃리치>, 은혜롭게 마쳐



믿음의 다음세대인 광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7월 26일(금)부터 28일(주일)까지 국제광림비전랜드(중등부)와 광림수도원(고등부)으로 여름수련회를 다녀왔다. 예년과 달리 중등부와 고등부가 각각 부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따로 심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

**중등부**(위원장 : 박영노 장로)는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여 ‘답은 지저스’로 주제를 정하고 미디어 금식을 하며 수련회 기간 하나님께만 집중했다. 주제인물 ‘베드로’와 사도행전을 바탕으로 공동체 도미노 게임, 성경말씀 퀴즈 도전 성령 벨, 코스 프로그램 ‘광림 어벤저스 : 인피니티 성령’ 등은 학업으로 힘들었던 중학생들

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었다. 성경 속 인물들이 입었던 옷을 재현해 패션쇼를 진행한 ‘프로젝트 바이블 런웨이’로 학생들은 조별로 하나가 되었고, 교사들은 직접 세족식을 행하며 학생들을 섬겼다. 중등부는 예배실 의자를 치우고 무릎 꿇고 예배하며 맘껏 하나님을 찬양했다. 도신우 목사(교육 2부)와 김덕민 목사(사랑부)는 말씀과 기도 인도로 우리 삶에 예수님만이 해답임을 전했다.

**고등부**(위원장 : 김병남 장로)는 ‘살다 살리다 살아가다’의 주제로 베드로처럼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짐하는 특별한 수련회를 진행했다. ‘나눔청년’이란 별명을 가진 유증갑 청년의 특강을 듣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진지한 토론으로 나눔에 대한 도전도 불러일었다. “저녁집회 찬양 때 입술의 고백과 선율이 주님이 제게 주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하는 음악을 주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라고 김재영(고등1부) 학생은 말했다. 박준호(고등2부) 학생은 “저는 회칠한 무덤 같이 겉은 살아있으나 속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주님께 아뢰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 복음을 바르게 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여름수련회 후 중고등부 연합팀은 7월 29일(월)부터 3박 4일로 전남 신안의 지도감리교회(담임 : 구인덕 목사)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직접 교사가 되어 유아부,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 여름성경학교를 열어주며 복음을 전했다.

도신우 목사는 “학생들이 아웃리치를 통해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거지와 예배실 뒷정리는 물론 아이들을 씻겨주고 바다에서 놀아주면서 누군가를 세우고, 양보하는 일들이 어색했던 아이들이 예수님께 중심을 드리니 누구보다 능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로 5년째가 된 신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점차 뿌리가 내려,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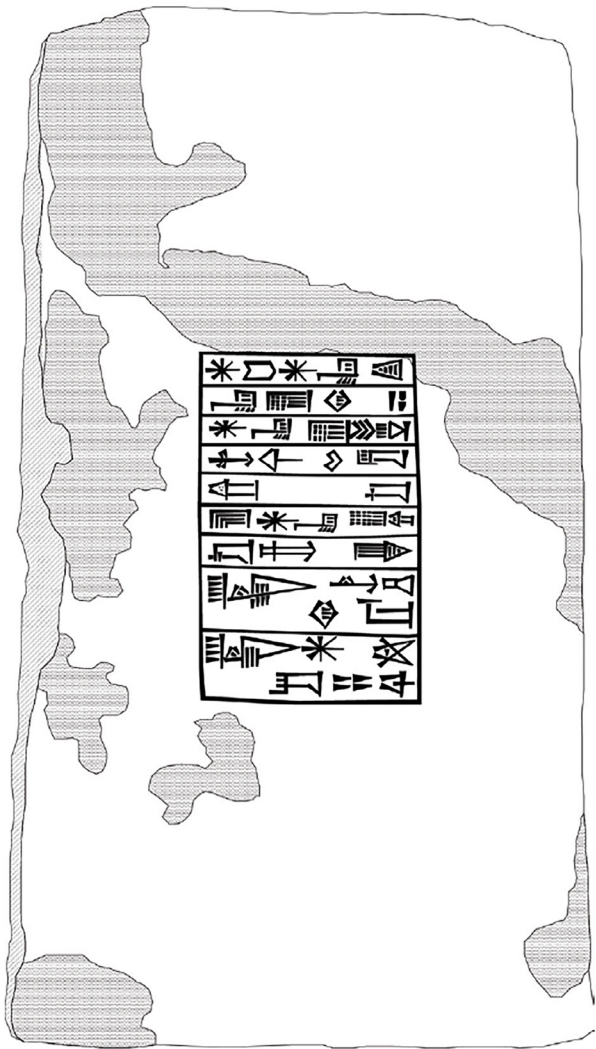
소현수 기자 camancow@naver.com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13 아모르-신



1. ʿAmar-ʾdSin(EN.ZU)°
2. Nibruʾki-a°
3. dEn-ʾlíl-le°
4. mu ʾpàd-da°
5. sag-ús
6. é dʾEn-líl-ka°
7. nita kalag-ga
8. lugal Úrim/ ki-ma
9. lugal dUb-da / limmu-ba

“아모르-신, 니푸르(Nippur 도시 이름)의 신인 엔릴의 이름으로 부름 받은 자, 우르의 위대한 왕, 네 지역을 다스리는 왕, 그가 사랑하는 주인 엔키(Enki 마실 수 있는 물의 신이자 에리두 도시의 신)와 압수(Apsu 깊은 땅 속의 물을 다스리는 신)를 위해서 신전을 세우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늦은 나이에 낳은 외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양지와 음지로 나눌 수는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걸었던 삶의 길은 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 어느 것 하나도 값지지 않은 것이 없지만, 가장 중요했던 순간을 꼽아 보라면 저는 주저 없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오려고 마음 먹었던 믿음의 결단과 그것을 몸으로 옮긴 용기라고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했을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온 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창 12:1)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부를 만한 최고의 찬사를 받게 된 아브라함 인생 최대의 '버림(포기)'은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신(神)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현재의 이라크)가 있었던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두 개의 강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이라는 뜻의 메소포타미아는 각각의 도시들이 작은 나라들을 이루며 살았고, 이 도시들은 저마다의 신(神)을 섬겼습니다. 가히 신들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

요. 그냥 '하늘의 신', '별의 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중앙 부분을 관장하는 신은 안/아누(An/Anu), 북쪽 하늘을 다스리는 신은 엔릴/엘릴(Enlil/Ellil)이었고, 남쪽 하늘은 엔키(Enki)가 지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별도 마르둑(Marduk)은 목성, 니누르타(Ninurta)는 토성, 네르갈(Nergal)은 화성, 인안나(Inanna)는 금성, 나부(Nabu)는 수성, 난나/신(Nanna/Sin)은 달, 우투/샤마쉬(Utu/Shamash)는 태양을 관장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사람들이 보고 만지는 모든 것들을 각각 다스리는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도대체 몇명의 신들이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도시마다 섬기는 신들도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양한 신들을 필요에 의해서 섬겼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성장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견해는 그가 우르 3왕조의 시대 끝자락(2112-2004 BCE)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여섯 명의 왕들이 통치했었는데, 그 중에서 네번째 왕의 이름이 아모르-신(Amar-Sin)이었습니다. 아모르-신은 '달의 신(神)인 신(Sin)을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모르-신이 통치하던 시절에 쌓은 건물의 진흙 벽

돌이 에리두(Eridu)라는 지역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그 위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모르-신, 니푸르(Nippur 도시 이름)의 신인 엔릴의 이름으로 부름 받은 자, 우르의 위대한 왕, 네 지역을 다스리는 왕, 그가 사랑하는 주인 엔키(Enki 마실 수 있는 물의 신이자 에리두 도시의 신)와 압수(Apsu 깊은 땅 속의 물을 다스리는 신)를 위해서 신전을 세우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시 우르(Ur)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주하였던 하란(Haran)은 달의 신(神)인 신(Sin)을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삼는 도시에서 달의 신을 섬기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흙 벽돌의 발견으로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에서는 적어도 달의 신 뿐 아니라, 농경 생활을 하는데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물의 중요성 때문에 물의 신들인 엔키와 압수도 신으로 섬겼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한 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혼동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신들의 형상 앞에서 향을 피워 올렸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 모든 신들은 거짓이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 할 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알려 함

께 살았던 친구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갈대아 우르 사람들은 농경으로 먹고 사는데, 농업을 관장하는 신들을 부정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한 분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 그리고 그렇게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면, 아마도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을 당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그 수 많은 신들에게 각각 제사를 드리는 날, 모두가 모였는데 홀로 빠진 아브라함을 가리키며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이고, 신들을 대하는 사고 방식이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당해야 했을 차별을 감내해 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아브라함도 '나 혼자서 이게 뭐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고민했을 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이웃마저도 과감하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음성에 응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거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신이라고 섬겼던 수 많은 신들에게서 돌아섰고, 우상을 숭배하던 가족, 이웃, 친구, 그리고 자기 나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땅을 향해 어디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떠났습니다.

세레자 요한은 자기가 있던 광야로 세레를 받으려 나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눅 3:8)고 선포 하였습니다.

혈통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 과거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사람이 만들어 놓은) 무수한 율법들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았던 과거로부터 돌아서는 이가, '과거로부터 돌아서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참 자녀라는 겁니다.

세레 요한의 외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공간)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참 예배자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버려야 할 내 과거의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부터 망설임 없이 돌아서야(회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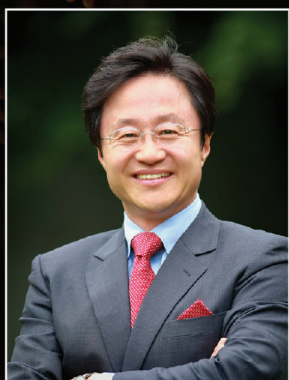
사진설명  
1 아모르-신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 2019 성령한국 청년대회

2019·8·31(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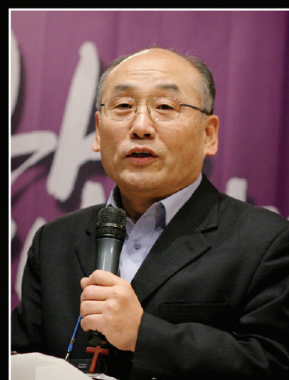
PM 4:00 잠실실내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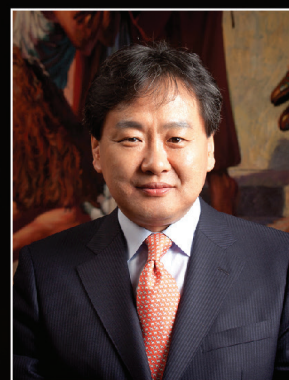
박성민 목사  
한국CCC대표



이재훈 목사  
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용익 선교사  
순회선교단 대표



김정석 목사  
광림교회 담임목사